

Yullin Newsletter

AUG. 8

열린교회 신문 2022.8 vol.326



말씀솔루션

하나님의 보심

우리 인간은 오직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우리를 봅니다. 과거는 모두 지나갔고 기억만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 기억 중 어떤 것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희미해져가고 어떤 기억들은 잘못 남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인 것과 꾸며낸 것들은 종종 우리의 기억 속에서 뒤섞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미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릅니다. 인간은 그렇게 시간 안에서만 모든 사물을 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사물을 보시지 않습니다. 초월적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여러분 중에 누구를 데려 가실지, 누가 신앙에서 미끄러질지 누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될지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만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초월하여 한 번에 보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하실 때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신 것처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격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승리, 번영, 행복, 기쁨, 사랑, 죽음, 눈물은 어떻게 보면 드넓은 바다에 출렁거리는 파도 위의 거품, 그 위에 터져서 위로 오르는 지극히 작은 물방울 하나와 같지 않습니까? 그 우주 공간에 무한한 침묵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파스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무한한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번 올바르게 가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가슴 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한,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들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표현될 때에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시간과 공간 속에 표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심히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하나님의 시간·공간〉 설교 시리즈 중에서

(본 시리즈는 하나님과 시간·공간·시간 공간 안에서 아심/믿음과 시간, 공간/열매 없이 알리라/하나님의 현견지를 알 때 다섯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는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Yullin Newsletter>는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의 <열린신문> 코너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남준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행정센터

편집주간 류요한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2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열린교회

사랑부토요성경읽기반 후기

담대하고 당당하게 믿음에 굳게 서기



이관희(22세 남)

토요일 성경공부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게 됐지만 나중에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성경을 돌아가며 읽는 게 좋았고 말씀 암송을 발표하는 게 긴장됐지만 칭찬 받아서 또 좋았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배운 게 기억에 많이 나고 지금도 배운 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선물로 주신 성경도 매일 혼자서 1장씩 읽구요. (부모의견: 어린아이처럼 대했던 아들이 사랑부 안에서 청년으로 인정받고 좋은 습관과 태도를 배우게 되니 대견하고, 섬겨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송지혜(32세 여)

토요성경읽기를 안 할 때보다 하고 나니 더 좋았습니다. 성경을 자꾸 암송을 하다 보니까 나도 해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말씀읽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말씀을 읽을 때 내용 이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읽

기가 느리다면 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읽어서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말씀읽기에 열심을 다하고 싶습니다.

김준영(25세 남)

코로나로 교회 친구들을 못 만나다가 함께 성경읽기를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재미있었고 기분이 좋았어요.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셨던 거 같고, 찬양하고 열심히 불렀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가르쳐 주셔서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읽기 마지막 날에 도시락도 먹고 선물도 받고 너무 좋았고 9월달에 성경읽기(토요성경반) 또 참석하고 싶습니다.

정수연(31세 여)

전도사님께서 토요일 성경읽기 공부 시작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많은 설렘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많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읽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면서 공부하며 깨달을 수 있어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성경읽기 마지막 시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사님과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한 성경읽기를 마음 속에 잘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앞으로도 영원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대로 시편 23편으로 기도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전혀 듣거나 읽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배웁니다. 그것들은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아서 믿음에 설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나는 절대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사람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걸아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걸핏하면 불안할 때마다 이상한 캐릭터 같은 것에 신경 쓰는 마음이 있다면 없애주세요. 그것들은 바람에 쉽게 없어지는 거 같기 때문에 믿음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쫓기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에 집에서 레고 인형들 가지고 엄마랑 재미있게 흥내내서 대화도 하고 내가 그 인형들을 가르치는 놀이도 하고 재워 주는 놀이를 한 것은 단지 내가 엄마랑 재미있게 여가생활을 즐긴 것뿐이지 그 여가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비슷한 존재이므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레고놀이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부 토요성경읽기반은 하반기에 있을 토요성경반을 위한 예비 모임으로 성경 암송, 성경 읽기, 기도 배우기를 통하여 신앙의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6월 4일부터 4주간 진행하였습니다. (양승희, 사랑부 담당 전도사)



교회 소식

예배 및 각종 모임 안내

-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주일 주중 예배 및 기도회, 교회학교 예배, 테마학교에 현장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목양을 위한 교인 출결 확인과 신천지 예방을 위하여 예배실 입장 QR 체크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 주일 벤처다임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드실 수 있습니다.
- 주일 대예배 시간 자모실 사용은 연령에 맞는 자모(자부)들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랜만에 현장예배 드리시는 분은 현금봉투 기입후 현금하시면 차주에 개인 현금함과 현금봉투를 만들어 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 및 1부 새벽 기도회 재개 (진행중)

- 1부 예배 :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 1부 새벽 기도회 : 오전 5시 (별관 2층 교육실4)
- ※ 주일은 1부 새벽기도회가 없고, 2부 새벽기도회(오전 6시 본관 3층 예배실)만 진행됩니다.

특별작정기도 (진행중)

- 일시 : 10월 15일(토)까지, 오전 5시-밤 12시
- 장소 : 교회 및 개인 기도처
- 신청방법 : 교회 홈페이지(www.yullin.org) 또는 교회 스마트폰앱

전도대원 모집 (진행중)

1. 전도대 운영안내
 - 화요 거점 전도대 : 오전 10시 본관 1층 예배실 집결
 - 수요 직장인 전도대 : 오후 12시 열린카페 집결
 - 목요 상가 전도대 : 오전 11시 30분 열린카페 집결
 - 토요 남성 전도대 : 고시원 선교 및 인근 거점 전도(시간은 협의 예정)
2. 문의 및 신청 : 교구 전도팀장 및 지역전도위원회 권경철 목사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공과방송 휴강

- 일시 : 7월 31일(주일), 8월 7일(주일)
- 2주간(여름 휴가기간)



새가족

▶▶ 장년

- 권영민(57) 김택수(83)
- 조길순(68) 박혜란(78)
- 박미정(79) 김정환(58)
- 소성희(62) 김인수(68)
- 박창릉(88) 이정미(74)
- 김종광(76) 장은호(67)
- 이승률(91) 김승민(84)
- 이원웅(92) 유혜경(76)
- 오민수(78) 김경수(69)
- 권기림(78) 이영주(73)
- 최은석(72) 이은혜(72)
- 김은아(84)

▶▶ 청년

- 이재혁(91)
- 이종현(02)
- 오정현(79)
- 조창희(95)
- 최동현(93)
- 홍민기(85)
- 권영실(87)



8월 주요사역

- 7, 21일(주일)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장년교구 구역장 모임
- 14, 21일(주일) 신학생과 일반 장학생을 위한 장학금
- 15일(월)~17일(수)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회
- 18일(목) 노숙자 섬김의 날

여름성경학교 후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진예건
(유치부 7세)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7세 김기쁨 선생님의 반 진예건이라고 해요. 여름성경학교를 하기 전부터 저는 너무나 설렘이요. 그 이유는 바로 전도사님과 선생님께서 여름성경학교 때 물총놀이도 하고 미끄럼틀도 타고, 맛있는 것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하기 며칠 전부터 저는 엄마에게 매일매일 물어보았어요. “엄마, 우리 몇 밤 자면 교회가?” “엄마, 이제 며칠 남았어?”

기다리던 여름성경학교 날이 왔어요. 유치원 가는 날은 우리집에서 풀등으로 일어나는데 이날은 내가 우리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사실 1등으로 교회에 도착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물총놀이가 너무 기대되었기 때문이에요.

가다리던 여름성경학교 날이 왔어요. 유치원 가는 날은 우리집에서 풀등으로 일어나는데 이날은 내가 우리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사실 1등으로 교회에 도착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물총놀이가 너무 기대되었기 때문이에요.



우와! 드디어 멋진 티셔츠로 갈아입고 유치부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이 길이라서 나는 참 좋아요'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친구들과 줄 서서 늦뽀를 찾아서 미끄럼틀도 타고, 나쁜 죄를 없애기 위해 열심히 물총도 쏘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 고개를 썼어요. 앞이 잘 안 보여서 답답했지만 재미있었어요. 하루가 금방 지나간 것 같았어요.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이 되었는데 엄마가 멋진 것을 보여준대요. 불을 끄고 천장에 그림자를 보여주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3번이나 다시 봤어요. 예수님이 직접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얘기해 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림자놀이를 다 보고 잠을 자려는

데 웬지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의 잠자리 대표기도를 하겠다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새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미끄럼틀을 타고 새롭게 세상에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



조수아
(유년부 2학년)

안녕하세요? 유년부 요한 2반 9살 조수아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저에게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처럼 저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성경학교에서는 평상시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많은 시간 설교를 듣고, 공과공부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바꿔주신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여름성경학교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전하러 동네로 간 것처럼 저도 앞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 저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



박조이
(초등부 4학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여름성경학교를 현장에서 해서 가기 전부터 마음이 설렘이요. 토요일 아침에는 조금 피곤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교회로 갔을 때는 피곤함이 싹 다 없어졌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끝나고 자모실로 이동하였습니다. 날씨는 매우 습하고 모기는 옆에서 시끄럽게 울고 있었지만 무사히 공과를 마치고 다시 갔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도시락은 매우 맛있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와는 다르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30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렀을 때입니다. 남편 5명에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놔 버린 채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웬지 모르게 은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2과 공과를 마친 뒤에는 조별로 팀을 나눠서 코스를 성공하여 스티커 20개를 모두 모으면 간식을 받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2코스에서 상대팀과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저희 2조가 스티커를 가장 못 받을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격려하며 우리 2조는 스티커를 모두 모았습니다. 하늘로 날아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성경학교를 또 하고 싶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박아린
(소년부 6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부 6학년 박아린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오프라인 여름성경학교를 참석하지 못하기도 했고 또 청소년이 되기 전 마지막 여름성경학교라 저는 누구보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또 한 달 전부터 전도사님과 선생

8월 추천도서

납작 옆드리기 류응렬/두란노서원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선포한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납작 옆드린다. 이 책은 성경 속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옆드리므로써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남다른 통찰력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성경 인물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의존에서 나오는 간절한 간구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안타깝게 내뿜는 탄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절규와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는 사랑의 송가로 들리기도 한다.

그들의 기도와 노래에 귀를 기울여 보면 힘을 내라는 주님의 속삭임이 있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가 있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격려가 있다. 이 책을 통해 납작 옆드린 당신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길 바란다.(인터넷 교보문고)



포토에세이

사진 : 김범무(장년6교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님의 조연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당일이 되었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주제로 모든 순서가 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

다. 첫째 날에는 킬링과 방탈출 같은 레크리에이션 활동들과 두 번의 설교, 그리고 기도회가 저녁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모두 다 저희 신앙 성장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재밌게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친구들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다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설교와 예배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예배와 전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제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재밌고 유익하게 진행되어 감사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좋았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속에서 저와 소년부 친구들이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유아부 후기

아이의 질문에 소름 돋았어요



저희 가족은 안양으로 이사 후 지난해 가을에 열린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또래 자녀를 키우고 있던 열린교회 교인인 친구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만 3세였던 은호를 유아부 예배에 처음 데려가던 날, 모든 아이들이 조용히 구름방석에 앉아 사뭇 진지하게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록 아직 어린아이이지만 열린교회 유아부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극진하셨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이 스스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하며 동역해 주셨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열리기 몇 주 전 주일예배 시간에 자녀의 신앙과 회심을 위한 부모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후, 저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는 교회에서 말씀도 듣지만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맛있는 과자도 먹는 즐거운(?) 시간이라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해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법나무', '똥나무' 등을 표현한 다른 친구들과 달리 은호는 '십자가나무'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은호에게 나무를 만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물어보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생각나서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린교회의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3주간의 준비기도회와 아이들의 회심을 위한 교회 전체의 많은 분의 노력을 지켜보며 저의 고정관념과 안일한 생각에서 탈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함께 준비했던 여름성경학교가 총 2주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은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경학교 첫 공과를 하고 난 며칠 후 미술수업 중 '나무'를 주제로 자유롭게 표현

해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법나무', '똥나무' 등을 표현한 다른 친구들과 달리 은호는 '십자가나무'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은호에게 나무를 만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물어보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생각나서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아부 후기

이 지식이 밑거름 되기를

양재원 영아부교사
jaewony@gmail.com



'여름성경학교' 단어만으로도 설레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아이들과 맘껏 움직이지 못한 답답함이 큰 이유였다. 영아부의 한 돌 혹은 두 돌 지난 아가들이 어떤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을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작은 생명이 자라는 것을 목격한다면,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는 이러한 감동이 눈으로 보이는 귀중한 시간이다.

우리 여름성경학교는 기도로 시작되었다. 6월부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로 준비하였다. 여름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여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또한 영아부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기에 부모와 교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길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어지러운 이 시기에도 언제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세 번에 걸쳐 교육하였다.

영아부 아이들은 세 개의 소주제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새생명'을 받아 빛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음을 배웠다. 어떤 아이들은 말씀과 연계된 찬양을 부르며 신나게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아직은 예배드리는 것이 낯설어 교사 품에 꼭 붙어 있기도 했으나, 그 모든 모습이 배움의 한 과정이었다. 영아부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믿음'과 '예수님' 등 중요 단어들을 힘주어 강조하고, 뱀인형과 십자가 등 교보

재를 활용하여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쑥쑥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진 분반 공과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 붙이기 활동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짚었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려는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빛이 났다.

여름성경학교의 대그룹 활동은 아이들이 시각과 촉각을 사용하여 '복음'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패러슈트(낙하산처럼 넓은 천)를 펼치면 부서실을 가득 채우는데 그 끝자락을 잡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즐거워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작은 볼들이 패러슈트 가운데서 통통 튀어 오르는 것을 보면서 몇몇 아이들은 공을 잡고 싶은 생각에 열심히 기어 들어가기도 했다. 이내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커다란 까만 공이 패러슈트 안에 던져졌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까만 죄가 사라졌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의 죄를 없애는 의미로 패러슈트 위의 까만 공을 제거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 후, 패러슈트를 채운 흰색 공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변화된 우리의 마음임을 알려주었다. 까만 색과 하얀 색 공을 사용하여 마음의 상태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했고, 아이들은 공을 보며 한껏 좋아했다.

여름성경학교는 기대와 소망을 담은 기도로 시작되어 복음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아이들의 활동으로 전개되었고, 부모와 함께 아이들을 주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의지의 사랑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밑거름되어 우리 아이들이 굳건히 자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갈 것이라는 믿음을 받는 은혜로 마무리되었다. 성경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전도사님, 선생님들, 부모님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시작 전부터 주관하시고 마무리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린다. ☆

이주선 유아부학부모
estherlee612@gmail.com



아이가 마냥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에 크게 놀랐고,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으며 십자가에 대해 가졌던 저의 생각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모두 마친 후, 집에 와서 공과 관련 공과를 하던 중 은호가 '엄마,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유를 물어오는 질문을 할 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저희 가족은 은호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를 경험하게 된 놀라운 시간이었고, 그 과정을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 변하여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세상의 교육방법에 휩쓸리지 않고, 은호가 말씀 안에서 빛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

임직후기2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사무권사



김남순

임직자 명단이 나왔을 때 처음 머릿속에 떠오르는 책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였습니다. 처음에 열린교회 등록했을 때 이 책을 접하였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던데요. 나의 예배태도를 바꿔 주었고 하나님께 드러지는 예배의 정신, 마음, 자세 등 감격 없이 드러지는 예배가 얼마나 불손한지,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각성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로 돌아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시금 제 모습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임직교육을 통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지체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배웠고 교회 앞에 두렵지만 순종하며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질서를 따라 직분자의 의무를 다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김명정

보잘 것 없고, 자격 없는 자가 교회의 귀한 직분을 받아도 되는지 두렵고 떨리는 심정입니다. 이런 비천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충성된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김수미

임직을 위한 교육 기간 동안 예기치 않게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 과정에 아무런 차질 없이 모든 일들이 적절하게 순차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고마운 많은 분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깊이 느꼈습니다. 받은 사랑만큼만, 빚진 만큼이라도 갚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제게 주시는 기회로 여기겠습니다. 부디 이 다짐 변치 않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김은자

5개월간 임직교육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임직교육을 통해 많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몸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교회에서 겸손하게 배우며 헌신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또한 교육 과정 내내 보여주신 교역자분들의 섬김에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나근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을 통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삶의 불필요한 것들을 보게 하시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라고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순종함으로 하나님 가까이 있기 위해 애쓰며 살겠습니다.



박정화

주님의 사랑에 빚진 것밖에 없는 가련한 자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직분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받은 사랑의 사람으로 주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주님의 교회를 꿈꾸며 그 영광에 참여할 자의 삶을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백은정

한없이 부족한 저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직교육을 통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길 직분자로 새롭게 준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에 따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기도하며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늘 주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묻고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스런 사명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정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막연히 인생을 계획하면서 주님 허락하신 몸 된 교회를 성실하게 섬긴다면 언젠가 내가 불러워질 이름은 '권사'이겠구나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막연했던 중년의 시절을 지나고 있고 영광스러운 권사 임직도 받게 되었네요. 예상과는 달리 저의 연약함이 그 시절과 큰 차이가 없어 주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온 교회의 기도와 사랑으로 임직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이루신 주님께도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받은 사랑이 잘 흘러가도록 더욱 겸손하고 착한 성도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신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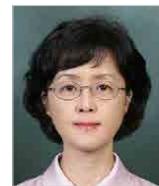
임직교육을 받으며 여러 번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설교 스테디와 나눔이 깊어질수록 갈등은 회개와 자신의 무가치함으로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향한 소망을 더 갖게 했습니다. 교육 내내 목회자분들의 섬김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본을 삼아 잊지 않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작은 섬김이지만 교회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모습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안지영

임직교육을 마치며 들었던 생각은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처럼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남은 인생을 주님 위해 의미 있게 살라고 일꾼으로 불러 주신 것 같았습니다. 주님 닮은,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겸손과 눈물이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달에 이어 신임 임직자 소감을 전합니다. 시의성 있는 기사를 우선적으로 실어야하는 신문의 특성상 본기사는 앞으로 두 번 더 연재될 예정입니다. 편집부)



원미영

권사로 피택되었을 때 가정의 어려운 일이 생겨 제대로 교육을 받고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했으나 이제껏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 교회의 한 귀퉁이라도 섬겨야겠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자신의 영적 상태가 날날이 드러나 어느 자리에서도 섬기기에 부족해 권사의 직분이 무겁고 부담이 되었지만 이제껏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주님을 의지하고 감당할 힘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병에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임직교육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합당한 자로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돌봄으로 삶과 예배가 일치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이 이 땅에 구현되는 삶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유재영

임직교육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며 이웃 사랑의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힘들고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지연

자격 없는 저를 교회에서 불러주실 때 하나님 앞에 두렵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는 동안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교구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윤명실

아직 신자로서 혼자 서는 것조차 어렵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조차 부끄러운 저입니다. 임직 후보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제게 맞지 않는 옷인 것만 같아 죄송하고 민망할 따름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섰으니 하나님과 교회에 폐가 되지 않기만을 기도합니다. 직 분자라는 이름을 갖게 됐으니 스스로 더욱 조심하고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행동하여 작게라도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경주자(교역자칼럼)2

다시 십자가 아래에서



김미영 장년1교구 담당전도사
dailykneeling@hanmail.net



“내 눈물로 정한수 삼아 찢기신 주님의 이마에 핏자국을 닦아 드리고 / 내 머리카락을 잘라 신발 삼아 벗으신 그 발에 신겨 드리고 / 내 살가죽을 벗겨 고운 홍포를 지어 벗으신 몸에 덮어 드리고 / 점점이 살을 에어 못 박혀 뚫어진 손바닥 창으로 구멍 난 옆구리를 메워드리리이다 / 그리하고도 남은 살과 피가 있다 하여도 그것조차도 제 것은 아니옵나이다“

교회마다 강렬한 성경구절이나, 전도 격려 또는 성전 건축을 다짐하는 구호가 빨강 파랑 글씨의 커다란 현수막으로 만들어져 강대상 좌우에 딱하니 걸려있는 것이 익숙하던 시절에 참으로 낯설기 그지없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주 예쁜 색깔 바탕에 작은 글씨로 바로 위의 시가 곱게 적혀 강대상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너무 예뻐서, 살벌한 시구가 이상하게 너무 아름다워서,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십자가를 ‘생각’하게 만든 교회가 바로 열린교회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나 본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십자가를 손 내밀어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가 살벌할 것도, 아름다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십자가는 십자가였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그런 제게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십 몇 년 전, 방배동에서 설교가 참으로 ‘용’(?)하다는

소문이 온통 자자하던 그때, 주뻗뻗 찾아간 낯선 교회, 열린교회에서였습니다. 아마도 무슨 사경회를 것입니다. 남의 교회인 그 교회에 앉아 저는 십자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십자가 설교를 ‘듣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손 내밀어 십자가를 만져봅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거칠었는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이것이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 교회가 더 이상 남의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기고, 감사하게도 결혼과 함께 열린교회는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꼭 2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열린교회를 우리 교회로 주신 지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주께 빛진 것을 갚을 기회로 삼으라고 사역의 자리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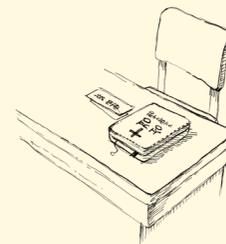
이제 저의 바람은, 모든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만져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났지만 아직 그 십자가를 만져보지 못한 우리, 여전히 남의 교회 온듯 주뻗대고 있는 우리, 십자가 아래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시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아름다운 그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곰곰이 생각

교회 안의 자연인을 위한 ‘말씀’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귀한 음식을 먹는다고 그가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듯,



예배 현장에 있다고 그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는 소비문화에 익숙해져 가는 소비자가 있다면, 교회 안에는 기독교문화에 익숙해져 가는 자연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어린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독후감대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나요?
교회 가길 귀찮아하고,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지는 않나요?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거나 딴생각하지는 않나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예요.
우리 모두 예배의 감격을 누리요.

대상도서	『어린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생명의말씀사, 김남준)
응모대상	초등학교생
응모형식	자유
응모분량	500 ~ 1,000자 이내
응모방법	생명의말씀사 블로그 응모페이지에서 서식 양식 다운받아 이메일(yullinbooks@naver.com)접수
응모기간	2022년 7월 10일 ~ 8월 10일
당선자발표	2022년 9월 2일(개별연락 및 생명의말씀사 공식 SNS공지)
시상식	9월 17일(토) 오후 1시
시상식장소	안양열린교회(김남준목사)
시상내역	총 20명 최우수상(1명): 문화상품권 30만원과 상패 우수상(4명): 문화상품권 10만원과 상패 장려상(15명): 문화상품권 5만원과 상패
문의	독후감대회 담당자(070-4372-4240, 070-4372-4242)
주최	생명의말씀사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회

기도하는 사람은 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일시
8.15(월) ~ 8.17(수) 오전 5:10

장소
본관 3층 예배실

만남 품은 열린교인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김호진 장년5교구
lovelovedh88@naver.com



20대 초반에 첫 직장에서 만났던 선배님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외동딸로 태어나 사랑을 듬뿍 받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온 저로서는 선배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 들릴 리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살고 있던 저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이야기였고, 듣기 싫은 담화일 뿐이었습니다. 선배님은 말씀 앞에서 도망 다니는 저를 위해 몇 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인을 통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한눈에 반하게 해달라고, 제가 믿음의 가정의 며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선배님의 기도 덕분에인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높은 남자와 하나님의 대해 무지한 여자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은 범할 수 없다는 남자와 일요일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에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저는 교회에 나갔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남자는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 식구들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더 기뻐하고, 낮은 사람을 높여주고, 받은 것보다 몇 배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외면적으로 부족해 보여도 내면적으로 풍성함이 가득 차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 며느리이자 올케인 저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며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삶, 저는 그 놀라운 삶 속에 스며들었고 마음속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먼 탓에 다니던 교회를 옮기려고 하던 중에 열린교회 목사님께서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을 거라며 열린교회를 다니고 계시던 아주버님과 형님의 소개를 받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열린교회에서의 첫걸음은 저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를 설렘과 기대를 안고 다니게 된 저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저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저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신 건가요.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아 이 꿈에서 혹여나 깰까 두렵기도 합니다. 죄인인 저를 건져주시고,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혼 전과 결혼 후 극명하게 갈린 삶은, 세상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밀려 들어오며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푹푹 뭉친 구역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구역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하며 저는 조마조마한 줄에서 내려와 안정감을 누렸고 삶의 원동력을 찾았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논리와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배우게 되었고, 말씀으로 교제하며 응원을 받고 주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바라보는 아름다운 눈과 마음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영적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고,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엄마, 그리고 자매님이라는 타이틀로 산다는 것에 어려움과 부담감, 그리고 압박감과 조심스러움을 느끼는 삶이었고, 그 속에서 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 결국 저 스스로가 좁은 생각의 틀에 가둬 놓았다는 것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어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결론을 짓게 되었지만,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역장님을 통하여 책 한 권을 소개받아 읽게 하였고, 그 속에서 완전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제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에 저를 찾기 위해 발버둥을 쳤고, 사람들에게서 인정과 관심이 사라질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의식 속에서 분주하게 애쓰며 살다 보니, 언젠가부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즐거움을 누릴 겨를이 없는 저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부정했던 저의 진짜 모습을 꺼내놓고 보니... “아! 지금 나는 단순히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었구나.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과정이었구나!”라는 큰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시며 일어서게 하시는 분임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처럼 쓰디쓴 고난과 시련의 스토리 하나 없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 저에게 사람들은 신기하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제 인생을 돌아해보면 매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많은 장애물을 넘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보호 덕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너무나 어렵게 얻은 예쁜 외동딸이었지만, 딸에게 남자아이의 한복을 입힐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의 삶, 대를 잇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야 하는 종잡집 장손인 아빠와 그 집으로 시집오신 엄마에게 꼭 필요했던 아들을 주시지 않고, 딸 하나만 허락하시고 막으셨던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 마음속 깊이 복음이 전해지길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의 삶의 질이 얼마나 다른지 부모님께서 꼭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시어머니, 시누이와 같은 구역에서 함께 성경을 보고 공부하며, 기도하고 나눔을 하고, 서로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 육적 가족의 차원을 넘어 진정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영원히 유지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남준
- 시무장로** 김남근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박찬동 김원호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 부목사** 김성구 박재현 김동기 이성도 류요한 박철용 최성기 명성인 권경철 김태영
- 협동목사** 정창욱 김성진
- 전도사** 곽혜정 조희숙 정경아 강성경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이지연 신하경 양승희 김수민 이월순 정명원 홍명철
- 교육전도사** 김민성 김민정 김진산 이두호 최영광

파송선교사

- A국:** 4units, **B국:** 1unit, **C국:** 1unit
- 말레이시아:** 양연식 & 전희선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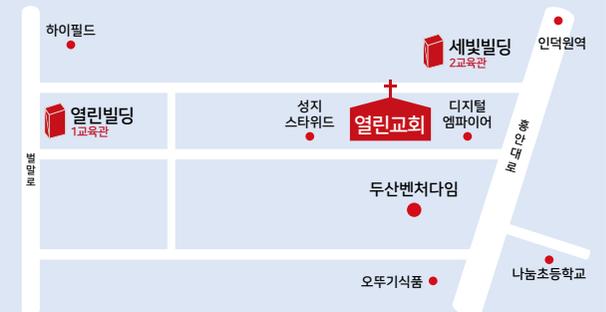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주일오후예배		오후 4시 10분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새벽기도	1부
2부		오전 6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금요기도		오후 8시 (교구별 지정장소)
*사랑부 토요교실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2)
*소망교실		주일 오후 1시 (세빛빌딩 4층 소망부실)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지 않고 있는 모임)

찾아오시는 길

열린교회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출구 800m, 평촌역 3번출구 700m 거리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열린교회에 오시려면

- 서울/과천 777, 441, 502, 540
- 안양 8, 8-1 군포 540, 8
- 성남 103(인) 구로 51(인) 수원 777
- * (인) : 인덕원에서 하차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 출구 앞에서 버스를 이용, 평촌동주민센터에서 하차하여 진행방향으로 100m 앞으로 오신 후 우측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열린교회가 있습니다.



에피그람 / 귀찮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자기 인생도 아니고 남의 인생도 아닌 삶을 사는 것이다. 귀찮음 속엔 행복이 없다.